

IV. 시사점

1. 국제적인 동향

□ 향후 국제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

연도	주요 변화 사항
2004	· EU의 Solvency-I 시행
2005	· EU 상장사 국제회계기준 적용, 국제보험회계기준 1단계 완성
2006	· 은행권 신바젤협약(Basel-II) 적용
2008	· 국제보험회계기준 완료(2단계 완성)
2009	· EU의 Solvency-II 완료
2010	· EU 국가별 Solvency-II의 적용
2012	· 국제보험회계기준 적용 국가의 확대

□ 이미 살펴본 EU "Solvency-II"의 개선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

- 요구자본(지급여력기준금액)의 **이원화(최저자본과 목표자본)**를 통하여 감독당국의 조기개입과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경영개선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함
- 요구자본 산출은 현재의 단순한 고정비율방식에서 보험회사 **리스크의 특성을 반영**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,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시킴
- 비계량적인 요소인 보험회사 내부 의사결정구조 및 리스크 통제에 대한 **정성평가를 강화**하며, 이러한 감독권한의 강화는 합리적으로 설정하며 투명하게 공개함

- “공정가치”를 중심으로 한 국제회계기준의 제정은 국내 보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함
 - 국내의 경우 생명보험 책임준비금은 발행년도 방식의 원가주의를 적용하고 있는데, 시가위주의 공정가치 회계 도입 시 손익 및 지급여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
 - 또한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보험부채(생/손보 모두) 평가시 최선의 추정치와 역편차충당금(PAD : Provision for Adverse Deviation)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요구함(현재 국내 손해보험의 지급준비금은 최선의 추정치만이 존재함)

- 금융의 통합화와 세계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 Basel-II의 적용은 보험감독 환경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
 - 특히 요구자본 산출시 각 금융회사의 내부모형을 인정하는 제도는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를 제고시키는 요인임
 - Basel-II를 기초로 하여 보험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리스크 평가방법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

2. 국내 지급여력제도의 개선방향

- 올바른 지급여력(자본 및 잉여금)금액의 산출은 재무건전성 평가의 초석이므로, 부채평가방식의 개선이 선행 요건임
 - 생명보험의 경우는 자산적정성분석을 통한 ALM리스크의 반영이 필요하며, 장기적으로는 매년 재평가를 하는 영업 보험료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됨
 - 손해보험은 통계적 추정방식의 지속적인 확대 발전 및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역편차충당금(PAD)의 반영이 필요함
 - 보험부채와 지급여력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위하여 보험부

채 적립수준에 관한 보험산업 내부의 의견수립이 필요함

- 국제보험감독관협의회, 타 금융권 및 외국의 보험산업의 경우
가용자본의 **순도(Quality)**를 제고시키기 위하여
 - 기본자본과 보완자본(후순위차입금, 상환 및 누적 우선주 등)으로 구분한 후, **보완자본을 일정 한도**(예를 들면, 기본자본보다 클 수는 없음)까지만 지급여력으로 인정함
 - 다만, 국내 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**단계적인 도입이 예견됨**

- 요구자본의 산출방식은 **리스크 민감형으로 전환될 것이며, 최저자본과 목표자본으로 이원화**
 - 최저자본의 산출은 단순하고 투명한 RBC방식이 선호되고,
 - 목표자본은 시나리오 분석 및 내부모형의 사용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, 그 구체적인 수준은 많은 논의가 필요함

3. 보험산업의 대응방안

- 지급여력제도의 변화는 보험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보험업계는 향후 국제적인 추세 및 감독당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야 함

- 첫째는 **리스크관리 능력의 제고**
 - 현행 지급여력제도에서는 판매한 상품 포트폴리오 및 운용 중인 자산 포트폴리오에 상관없이 지급여력기준금액이 정해지나

- 향후에는 자산과 부채에 내재된 리스크에 따라 지급여력기준금액이 달라지므로 리스크와 적정수익을 안배한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함

□ 둘째는 리스크평가를 위한 내부모형의 구축과 활용

-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스로 내부모형을 통한 목표자본(경제적 자본)을 산출하여 중요한 경영지표로 삼고
- 가격결정, 상품판매 및 자산운용 전략 등의 의사결정 수립 시 내부모형을 적극 활용하여야 함

□ 셋째는 지속적인 손익위주의 경영 필요

- 장기적으로 정책·감독당국은 목표자본을 현행보다 높은 수준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
- 보험회사는 지속적인 수익 창출방안을 강구하여 현재의 잉여금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

□ 마지막으로 새로운 자본확충 방안의 검토

- 채권시장의 지속적인 발달을 고려하여 주식이외에 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되는 신종자본¹²⁾(Innovative Capital)의 발행을 통한 자본 확충방안도 검토함

12) 신종증권은 회계상 부채로 기표되나, 이자지급을 발행자의 판단에 따라 지연시킬 수 있으며, 강제화된 만기가 없으나, 발행자에게 조기상환 옵션이 존재하는 증권임. 또한 채무변제는 우선주와 비슷한 순위를 갖고 있으며, 주식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보험사의 손실을 흡수할 수 있어서 일정 한도 내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될 수 있음